

# 김관영 도지사의 이색 실국별 업무보고

## 아이디어 경연장으로 분위기 'UP'

혁신도정을 추구하는 김관영 도정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존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돼 주목을 받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9일부터 각 실국별로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이번 업무보고는 팀별 벤치마킹 아이디어를 팀장이 직접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기존의 실국 주요 업무 중심에서 아이디어 경연장으로 분위기로 탈바꿈했다.

도청 공무원들은 "팀장이 직접 도지사님과 함께 격의 없는 토론을 하는 것이 처음이고 직접 제안을 하며 아이디어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도 처음이다"며 도정의 새로운 실험에 대해서 칭찬들 간에도 상당한 의지와 에너지의 변화가 있어 도지사의 혁신 실험을 서로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정의 성공 여부는 팀장의 역할에 달려있다"며 "팀장이 팀별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업무를 주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회의를 수시로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서비스 대상인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시로 소통할 것도 주문했다.



지난 19일부터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실국업무보고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실국장 및 과장을 비롯하여 팀장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격려하고 있다

**팀별 벤치마킹 아이디어 팀장이 직접 보고  
김 지사 "들어보니 좋은 아이디어 많이 있다  
정책 효과 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

에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시로 소통할 것도 주문했다.

또,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형식적이 아닌 건의사항을 들으면

일주일 이내에 가능성 여부를 피드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팀장님들 벤치마킹 보고를 들어보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다. 버릴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다"고 강조하며, 발굴한 아이디어 중 즉각 조치가 가능한 것은 바로 시행하고, 예산 반영 및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시행 여부 등을 조속히 검토해 정책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실국장 회의를 통해 10개를 선정해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것"을 지시했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A팀장은 "벤치마킹을 다녀와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직접 지사님께 보고까지 하게 되면 업무에 자신감이 생기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5개 실국의 업무보고가 진행된 지금, 현재까지 102개의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후 모든 업무보고가 끝나면 총 240여 개의 벤치마킹 정책 제안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전북 도정 김관영호의 새로운 혁신 실험이 시작됐다. /김경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지지자로부터 받은 선물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 캡처)

### 문 전 대통령이 지지자에게 받은 특별한 선물

## "사진이 아니라 자수라니 놀랍습니다"

편지에는 "감사합니다. 건강히 여가를 보내시길 기원" 적혀

지난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 인스타그램에 지지자로부터 받은 선물 사진이 게재됐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인스타그램에는 "이게 사진이 아니라 자수라니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자수는 옷감이나 형질 따위에 여러가지의 색실로 수를 놓는 것을 뜻한다.

문 전 대통령 측이 공개한 지지자의 편지에는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 안녕하세요. 5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창올림픽 개막식날 자수를 시작하여 짬뽕이 수를 놓아 1년 만에 걸쳐 마련한 국민중에 한 사람 마음이니 받아주세요"라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고향에서 건강히 여가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에는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숙 여사님! 안녕하세요. 5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창올림픽 개막식날 자수를 시작하여 짬뽕이 수를 놓아 1년 만에 걸쳐 마련한 국민중에 한 사람 마음이니 받아주세요"라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고향에서 건강히 여가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뉴시스

## 국회 상임위 확정... 전북지역구 의원 농해수위 '쏠림' 여전

여야 10명 의원 중 3명이 농해수위 배정... 전반기엔 2명

새만금농생명용지 활용 등 관련 활동에 농해수위가 제격 의견

전북 발전 위해 다양한 상임위 활동 필요성도 지적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이 underway 끝에 마무리된 가운데 10명 원내 전북 지역구 의원들의 특정 상임위원회 출림이 여전한 모습이다.

지난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남을 갖고 상임위 배분 등에 합의하고 이날 국회에서 표결 처리했다.

53일간의 국회 공백기를 종식했다. 전북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명 가운데 무려 3명이 특정 상임위에 명단을 올렸다.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몰렸다. 안호영 의원은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를 맡았다. 지난 전반기의 경우에는 이원택, 정

운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배정된 바 있다.

관련해 이원택 의원은 "대통령 공약인 새만금농생명용지 관련 전담조직 구성과 활용 등 해당 위원회에서의 역할이 커지면서 "전북 지역의 상황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선호도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정무위원회, 한병도 의원(익산)은 기획재정위원회,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영대 의원(군산)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수홍 의원(익산갑)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각각 배치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이용호 의

원(남원·임실·순창)이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에 이어 같은 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게 됐으며, 비례대표인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옮겼다.

다만 지역 정치권 등에서는 농도의 특성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출림이 이하는 가지나 지역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분산 배치가 낫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특별위원회인 예결위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들어갔으며 국민의힘은 김성원 간사를 제외한 위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뉴시스

### 도의회 농산경위, 농수산식품국 등 대상 추경 심사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22일 제38회 임시회 기간 전라북도 농수산식품국 혁신성장산업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농산경계위원회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는 등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김희수 의원(전주)은 성립전 예산 집행이 15건 정도가 있는데 추경

성립 전 예산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만 집행할 것을 지적하고, 예를 들어 가뭄대책사업 등은 그 사유로 인정이 될 것이나 기속사 관리 등과 같은 부분은 본예산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되고 추후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유를 깊이 숙고하길 당부했다.

또한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선정도 중요하지만 행정절차 집행 및 성과달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것을 주문했다.

/김경수 기자

### 도의회 문건위, 문체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의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지난 22일 제38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이병도 위원장을 비롯한 문건위 위원들은 K-문화 지원센터 건립 기본구상 용역 신규사업에 대해 K-문화 지원센터와 콘텐츠융합진흥원 사업 성격이 유사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될 가상현실스포츠 마을 오락

관 신규사업이 지방 소멸 예방의 목적의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수봉의원(완주)은 새만금 관광벨트 구축 연구용역에 대해 새만금 사업이 1987년 첫 삽을 뜬 이래로 이와 유사한 성격의 많은 연구용역이 진행됐고 다른 연구용역들과 큰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용역 추진 시 기존 용역들과는 차별화된 방향과 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 "소통의 매개체로서 원내대표 역할 다짐"

박병래 군의원, 부안군의회 민주 원내대표 선출

부안군의회는 지난 20일 의원 간담회를 열고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아 제7대 군의원에 이어 제9대 군의원으로 재선되는 등 다양한 정치 경험과 신망을 갖춘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성실하고 낮은 자세로 소통의 역할과 민주당에 대한 군민의 사랑을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의 뜻을 늘 가슴 깊이 새겨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나아가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확대된 만큼,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병래 의원은 1986년에 입당한 후, 제15~16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

에 입문, 민주당 전북도당 조직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아 제7대 군의원에 이어 제9대 군의원으로 재선되는 등 다양한 정치 경험과 신망을 갖춘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성실하고 낮은 자세로 소통의 역할과 민주당에 대한 군민의 사랑을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의 뜻을 늘 가슴 깊이 새겨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나아가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확대된 만큼,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 김제시의회 임시회 개최... 의정활동 본격

올 주요업무보고 청취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가 지난 22일 제28회 임시회를 개최해 오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일 제9대 김제시의회 의원 임기가 시작된 이후 첫 의사일정으로, 첫날인 22일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회 부원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됐다.

또한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동안 2층 소회의실에서 14명의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37개 실·과·소에 대한 올 주요업무보고가 계획돼 있으며,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안 사업 등을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제9대 김제시의회가 향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이 염원하는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회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영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김제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제9대 김제시의회가 현장 중심의 행동하는 의회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기울이며 소통하는 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제=곽도태 기자

## "지역공공의료 발전에 함께 할 것"

도의회, 남원의료원서 현장활동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지난 22일 남원의료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듣는 등 현장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위원들은 현장에서 공익적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공 보건의료사업, 취약지역 의료지원 등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2년 주요 성과 등을 보고 받았다.

이어 위원들은 심혈관센터와 분만실 등 남원의료원의 주요 시설들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에게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

함을 확인하는 현지 의정활동 시간을 가졌다

이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남원의료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익적 가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환경복지위원회는 도내 의료현장을 수시로 찾아가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지역공공의료 발전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의료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감염병진단병원으로 지정돼 진료 및 병상 제공 등을 통해 도내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 무주군의회 임시회 폐회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는 지난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회 임시회에서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답변 시간과 관련한 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1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무주군 업무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 군정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해양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집행부에서는 부서별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제시된 의견이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